

퀀텀 점프(Quantum Jump): “大 도약”

“내 몸이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존재하는 것을 지각하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 위에 존재 자체를 넘어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의 생명충동(엘랑비탈)은 살아 춤출 것이다.”

우주는 질서와 무질서의 공존과 통합의 원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다. 고전 물리학의 역학법칙들은 다양한 물리적 현상들을 해석해냄으로써 인류가 이 세계를 훨씬 안정적으로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음에 틀림없다. 또한 이러한 발견들은 원인과 결과를 기계적 작용처럼 해석하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시적 세계나 초거시적 세계에서는 이러한 법칙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현대물리학의 정론이 된지 오래다. 핵심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세계들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존재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이다. 평생 양자역학을 연구하며 틀을 제공했던 닐스 보어(Niels Bohr)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다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치 공이 아파트 1층에서 5층으로 튀어 오르듯이 전자 알갱이들이 간혹 궤도를 이탈해서 다른 궤도로 튀어 오르는 것이었다. 전자들은 이렇게 튀어 오르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특이한 점은 그 도약의 과정을 볼 수 없으며, 규칙성도 없다는 것이다. 단지 확률을 따를 뿐이다. 보어는 이를 양자도약(quantum jump)이라고 명명하였다.

사람들의 삶이 제각각 자기의 궤도(layer)를 달리고 있는 것은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의 모양과 흡사하다. 일반적으로 전자들은 자기의 궤도를 돌며 안정적인 준위를 유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도약하는 전자는 반드시 임계치를 뛰어넘는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이 현재의 궤도를 뛰어넘어 다른 수준의 삶을 지향할 때는 반드시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임계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평균지향적인 삶의 태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러한 에너지를 응축해 낼 수가 없다.

우리의 몸과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이러한 원자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죽어서 혹은 영속의 시간 앞에서 물질이 완전하게 해체되기 전까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미시세계는 그 역동성을 잃지 않고 유지해 나갈 것이다. 내 몸이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존재하는 것을 지각하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 위에 존재 자체를 넘어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의 생명충동(엘랑비탈)은 살아 춤출 것이다.

2013년, 모든 CARROTian들과 강사, 고객이 모두 크게 약진하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

We Serve The Global Success!
Written by C.E.O James Roh (노상충)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 스티브잡스

WE ARE THE CARROT